

결핵국가라는 오명

예병일(연세대의대 생화학교실 교수)

1891년에 발표된 “파상풍 독소의 실험적 연구”는 기따사또 단독으로 발표된 논문이며 1890년 발표된 디프테리아 면역 혈청에 대한 베링의 논문 내용과 비교할 때 대상균주만 제외하면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처음 파상풍균 연구를 시작한 사람은 뢰플러와 가프키였으나 파상풍균이 그 당시 과학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던 혐기성 세균(산소가 없는 곳에서 잘 자라는 세균)이었으므로 연구 진행이 늦어졌고, 이 연구를 이어받은 기따사또는 1889년 발표한 파상풍균에 대한 논문에서 파상풍균의 순수배양법을 소개한 후, 1890년 바일과 공저로 된 논문에서 파상풍 독소의 존재를 시사하였으며, 이후 혈청요법의 창안을 향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베링의 경우 화학적 약제 발견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였을 뿐이며 면역혈청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디프테리아 혈청요법 연구에 크

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1890년 발표된 논문에는 베링과 기따사또의 이름이 같이 게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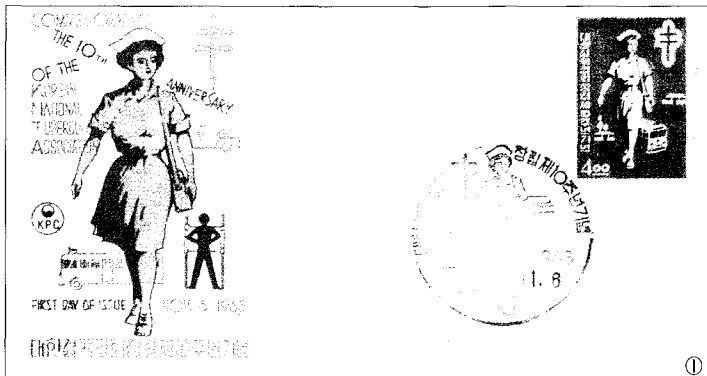
코흐는 1890년 전후에 자신의 숙원 사업이던 결핵균 치료제 개발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학자로서의 인생에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1891년에 그를 위해 설립된 베를린 전염병 연구소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자신을 잘 따르던 기따사또는 1892년 귀국해 버렸다. 자신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베링은 1894년에 그의 곁을 떠나서 할레 대학으로 가게 되었다.

코흐가 개발한 투베르쿨린이 결핵의 치료제로서 효과를 발휘했다면 최초의 영예가 그에게 주어졌을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1890년대 전반에는 투베르쿨린의 실패



- ① 대한결핵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우표 발행 초일봉피
- ② 결핵균발견 100주년 기념 주택복권 발행
- ③ 대한결핵협회 30주년 기념우표
- ④~⑨ 세계 크리스마스 썰 콘테스트 1위 작품들



로 실의에 빠져 있었고, 후반에야 겨우 원기를 회복한 코호에 반하여 1890년대를 할레대학 위생학 교수, 마르부르크대학 위생학 교수, 추밀의사고문관의 칭호와 작위 취득 등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한 베링은 코호의 부진이라는 틈새시장을 정치적 사회적 능력으로 파고드는데 성공하여 스승인 코호를 제치고 최초라는 영예를 얻는데 성공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결핵

우리 나라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결핵에 대한 기술은 삼국유사에서 죽은 자의 저주에서 병인을 찾고 있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의서인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 등에서도 결핵에 대한

기술을 찾을 수 있으나, 한의학에서의 결핵은 객관적으로 축진되는 단일결절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고서에서 현재의 결핵과 같은 질병을 찾아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대한결핵협회에서 발간한 <한국결핵사>에는 서양의학이 도입된 후에야 결핵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우리 나라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것(?) 가운데 의학 분야에서는 단연 결핵과 B형 간염이 손꼽히며, 한 때는 “결핵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다. 과거에 비교할 때 현재는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었지만 아직도 결핵은 우리 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는 질병의 하나이다. ♪